

일 주 문

-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장학금 전달**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5월 12일 삼원사 법당에서 철원·경기 지역 학생 36명에게 각각 장학금 30만 원씩 전달했다.
- 외국인 템플스테이 열려**  
영월 법흥사 주지 도안 스님은 6월 21~22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몽당연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033)375-9173
- 법현 스님 특강**  
서울 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은 6월 4일 오후 7시 대전 보현불교대학에서 '지혜로운 불자의 삶'을 주제로 특강을 연다.(042)624-6555
- 나눔사랑 일일호프 개최**  
고양 일산노인복지관 관장 능인 스님은 6월 14일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08 나눔사랑 일일호프'를 복지관 내에서 개최한다.(031)919-8677
- 한중일 불교와 인문학의 소통 학술세미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혜원 스님은 5월 30일 동국대 대강당 세미나실에서 '한·중·일 삼국의 불교와 인문학의 소통'을 주제로 불교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02)260-837
- 한국선학회 회장 선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김영두 교수는 5월 22일 동국대에서 열린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5대 한국선학회 회장에 추대됐다.

# “깨달음의 사회화 실천하는 도량 가꿀 것”

## ‘베풀어 풍요로운 절 충정선원’ 개원한 학승 스님

서울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3번 출구와 이어진 리시온 빌딩 429호. 출입문에 ‘베풀어 풍요로운 절 충정선원’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다. 최근 개원한 충정선원은 강원도 횡성 불영사(佛迎寺 주지 학승)의 포교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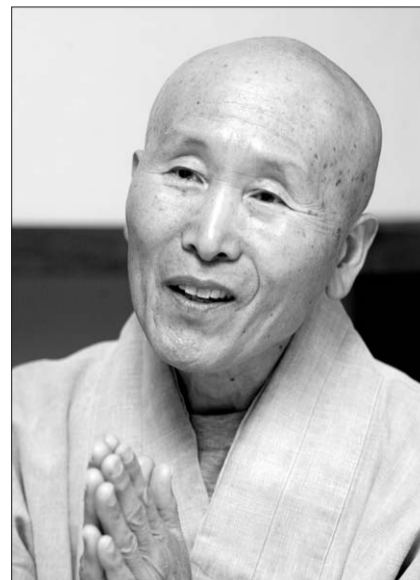
불영사는 고려시대에 3대에 걸쳐 대원수를 지낸 무장(武將) 조충 장군 가문의 입태(入胎)기도 타인 삼원수골에 학승 스님이 중창한 관음기도도량이다. 충정선원은 학승 스님의 원력인 ‘깨달음의 사회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교양강좌 및 차문화포교와 탐구의 도량으로 개방된다.

“세상의 혼란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람은 개체적 존재이지만 사회적 존재이고 초월적인 특성도 갖습니다. 사람 개인의 초월적 특성에 상응하는 진리와 사회적 특성에 상응하는 제도 그리고 개체적 특성에 상응하는 탐구력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진리에 부합된 새로운 사상과 이 사상을 구현 할 새로운 인물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완벽한 조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사회화입니다.”

학승 스님은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정치와 종교, 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충정선원이란 이름 앞에 ‘베풀어 풍요로운 절’이라 수식한 것도 개인의 삶 속에 내재된 사회성에 대한 자각이 다시 개인의 행복과 풍요를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학승 스님은 충정선원을 진리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도량, 인간 방생 불사의 도량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소유와 소비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탐심을 억제하지 않으면 사회악은 그칠 수 없습니다. 충정선원은 그윽한 차 향기 속에서 절제된 소비생활의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게 지혜를 배우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새 생각의 실천,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한 학승 스님의 원력은 각종 강좌와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대안제시 등을 통해 구체화 될 계획이다. 서울 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뒤, 수차례 출가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으나 인연을 만나지 못했던 학승 스님은 재가불자로 한 갑자를 살고 난 뒤에야 소천 스님의 ‘위폐상좌’로 출가했다. 세계일보 신문춘에 수필 ‘결재판’으로 등단(1992년)하고 창



원가능대학 교원, 새생각실천회 회장 등 활동을 해 온 학승 스님은 노인의 축적된 경험들을 청장년층을 위해 재활동하고는 등 종합적인 복지를 구현할 불로원(奉老院)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 <하산 그 다음 이야기> <아이고 부처님> <정도령(正道令) 정도령(正道領)> 등의 수필집을 내기도 했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원 기자 jwpark@budhopia.com

### 한국사-무주군, 템플스테이 협약 체결



무주 한국사(주지 도안)와 무주군은 5월 14일 관광자원의 효율적 상호화와 문화체험을 겸한 템플스테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사가 운영하는 ‘산사로의 초대’ 프로그램은 1회 80명이 동참해 1박 2일과 2박 3일 일정의 예불과 108배, 참선, 발우공양 등 산사체험과 태권도 등을 배워볼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국사와 무주군이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인 무주투어 상품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세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광주불교방송 개국 13주년 기념 공연 열려



광주불교방송 개국 13주년 기념 축하공연이 5월 22일 광주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광주불교방송 이상진 사장, 본부장 김강스님, 무등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는 가수 배일호, 소영, 강진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상진 사장은 “후남지역 포교를 위해 1995년 출범한 광주불교방송이 앞으로 바른 방송, 편안한 방송, 지우침없는 방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형선 전남지사장

###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중무원 전체 연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중무원 전체연수가 5월 22~23일 양평 남한강연수원에서 열렸다. 120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불교, 오래된 미래-불교의 르네상스를 위하여’ 특강, 가칭 중무원 행동규범 제정을 위한 토론회, 사상심리연구소 류종영 소장의 ‘유형진단과 탐욕형성’, 찰린저코스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중무원들은 바람직한 중무생활을 위한 행동규범(청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83-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엘씨)

### 청계사 경판 인출본 봉헌의례 봉행



경기도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5월 22일 ‘경판 인출본 봉헌의례’를 봉행 했다. 의례에는 청계사 회주 종상 스님과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형구 의왕시장 박석근 의왕시의회의장 등 지역 인사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했다. 이날 의례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 3월 26일까지 전통방식으로 세척하고 먹칠, 인출, 제본 등의 과정을 거친 466판에 새겨진 내용들을 인출한 책이 선보였다. 인출본은 <묘법연화경>과 불교강원교과목 및 의식문헌 등이다. 임연태기자

## “콘서트로 할머니들 아픔 알릴게요”

### 나눔의집에 200만엔 전달한 재일교포 가수 이정미씨

경기도 광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집(원장 원행)에 아름다운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재일교포 2세 가수 이정미씨가 5월 18일 나눔의집을 찾아 요양원 건립불사에 힘을 보탠 것이다. 이씨는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면서 200만엔(약 2000만원)을 쾌척했다.

이씨가 처음 나눔의집을 찾은 것은 2003년이었다.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전해들은 것이 다였다. 그러다 2003년 한국에서 공연을 열면서 이씨는 나눔의집을 방문했고, 그 때 이미 할머니들에게 인연을 느꼈다고 한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할머니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 지난해 2월 일본 도쿄 히토츠바시출에서 ‘아라이 에이이치, 이정미 나눔의 집 지원 콘서트 콘서트’를 열게 됐다. 콘서트에 참석하신 분들은 주로 나눔의집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보신 분들이었습니다. 880석 규모의 콘서트장이 꽉 찼을 때, ‘이렇게 할머니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싶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3년간 준비한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이씨를 좋아하는 팬들과 나눔의집을 응원하는 힘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번 방문이 6번째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가수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할머니들을 방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눔의집을 찾을 때마다 말벗은 물론 안마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이씨의 모습에 할머니들도 감동했을 정도다.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위안부’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저는 콘서트를 통해 할머니들의 존재를 알릴 생각입니다. 제 콘서트가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한편 나눔의집은 “이씨 외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70대 여성이 1000만원을 기부했다”면서 “기부금은 나눔의집 요양원 건립 및 할머니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이정미씨가 나눔의집을 찾은 것은 2003년이었다.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전해들은 것이 다였다. 그러다 2003년 한국에서 공연을 열면서 이씨는 나눔의집을 방문했고, 그 때 이미 할머니들에게 인연을 느꼈다고 한다.

## “신문으로 불교의례 함께 고민하고파”

### 연화회 유재철 대표

“장례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불교상장례문화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이번엔 신문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불교장례 신행포교 공동체 연화회 유재철 대표가 불교상장례문화를 진작시키고 불교적 의식과 의례를 재발굴하기 위해 ‘불교의례신문’을 발행한다고 5월 20일 밝혔다.

유 대표가 앞으로 발행할 불교의례신문은 격월간 무가지며 일반 신문 판형과 같은 대판으로 제작된다. 예상 발행 부수는 3만부인데 이는 서울 경기 지역 2000여 곳의 사찰을 비롯해 신령단체, 병원 법당, 복지단체, 군법당, 관공서 등에 배포 예정이다. 장간호는 6월 1일자로 발행된다.

유 대표는 “상장례는 포교로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의례기에 관련 교수들과 함께 신문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면서 “신문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사찰재정지원금 등으로 쓸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연화회는 6월 2일~8월 18일 매주 월요일 총 12회에 걸쳐 서울 불교인재개발원 교육관에서 ‘불교 상·장례 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02)735-2428 김강진 기자



### 한글한문 (겸 응)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용 소개**

-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써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자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3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성**

- 제 1권 : 예경:각청편      • 제 2권 : 천도:시식편
- 제 3권 : 수계:방생편      • 제 4권 : 장의편
- 제 5권 : 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일로 상용의식집을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용의식집을 보신 후 격려전화를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목 협장 -

**문의** 전 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출판 운주사 02)3672-7181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구입 가능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화제의 책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밀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절망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뱉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절되는 사람은 더 절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우리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 하며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기적과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읽고나면 일체의 고통과 절망의 시름과 슬픔과 고통을 벗어나서 마침내 승리를 성취하게 됩니다.

정당 저울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찾아오시는길: 4.호선 김음역 3번출구 - 정동 청수장가는 버스 - 엘리베이터 3지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미륵정사  
• 법 명 : 보문 (김길곤)  
• 주 소 : 경북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 767-4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법하

## 탈 종 공 고

• 법 명 : 도법 (백은희)  
• 주 소 : 경북 영천시 화남면 귀우리 1060번지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법하